

월요광장

모방된 욕망은 어떻게 폭력을 부르는가?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욕망하며 살아가는다. 그래서 욕망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자기 보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한다. 욕망하는 것은 지금 살아 있음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증거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어떤 일에도 의욕을 갖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도, 당당한 어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욕망이 삶을 이끌어 가는 추동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욕망은 우리를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어떤 욕망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욕망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깊이 숨겨진 우리의 '민낯'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욕망은 욕망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실대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욕망이 왜,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물음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크게 설득력을 얻는 주장은 '욕망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서 모방적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되면서 욕망이 생긴다는 의미다. 즉 욕망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좋다거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는 것인데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나 의미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욕망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욕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모방적 욕망의 핵심은 경쟁심과 힘에 대한 갈망이다. 그 바닥에는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소유하면 자신 또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서로를 비교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한 욕망도 더 강하게 모방된다. 이런 설명이 낯설지 않다면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큰 사람이 모방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쉽다. 자기 불신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모방 욕망의 예는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유명인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 유명인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물건을 쓰며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는 세상스러운 것도 아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부정하는 사람은 심지어 욕망 대상과

같은 얼굴로 똥배로 바꾸기도 하지 않는가. 분명을 철저히 감추고 가명을 쓰는 것도 같은 경우다.

다른 사람의 위치나 소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지나친 모방 욕망은 단순한 욕망 이상의 욕망이다. 경계를 넘어서면 모방 욕망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지배하고 자 하는 욕망이다. 상대방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은 선망하던 대상을 향해서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는가?"하는 맹목적인 적대 감정을 품는다. 게다가 모방된 욕망에서 비롯된 적대감은 "나나 나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호 간의 차이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는 위협한 감정이다. 그래서 쉽게 상대방만 사라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강력한 힘도 가질 것이라는 착각으로 발전한다. 상대방 때문에 자신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탓이다.

모방된 욕망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는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정의'를 위한 투사'로 내세우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은 평범한 경쟁이 아니라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선한 의지의 싸움이라고 강변한다. 즉 폭력을 '나쁜 폭력'과 '좋은 폭력'으로 나누고 나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자신은 '착하고 선한 폭력'을 쓴다는 주장이다. 바로 여기에서 모방된 욕망에 내재하고 있는 심각한 파괴적인 폭력성이 드러난다. 자신이 휘두르는 폭력은 모두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정당한 수단이라

는 주장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감요한다. 이를 가리켜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말한다. 사실 역사상 수많은 권력자가 권력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와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물론 모방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폭력을 합리화하는 논리는 유감스럽게도 독재 권력과 부패 세력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공허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이 등장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욕망을 조금도 고민 없이 모방하고 이를 다시 언어폭력적으로 분출하는 사람들이 늘어 간다. 하지만 왜곡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이건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 상대방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폭력적 행위는 사람들이 그 속셈을 모르는 '인지불능'의 상태에서 만 성공하기 때문이다. 요즘 학생이 누가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가겠는가. 최고 권력마저 함부로 힘을 사용하다가가는 맥없이 무너지는 세상이다.

타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욕망은 자기 성장과 확장에 필요한 건강한 욕망을 억압한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자 정체성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또는 파괴하기 위한 욕망은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오늘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생각한다.

법조칼럼

세계화시대와 법률가의 국제 활동



임 내 현  
변호사

2016년 기준 한국의 출국자는 3991만 명, 입국자 4007만 명으로 출입국자가 80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해외동포가 800만 명이고 한국국적인 해외자도 다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내거주의국민이 204만여 명이나 된다.

이처럼 현대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유엔과 WTO의 결정이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화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법률가들은 민사, 형사, 행정, 헌법소송 등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국내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최근 최신실케이프에서 정

유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과정에서 보듯 세계화시대에는 법률가의 국제 활동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상당수의 한국검사들과 변호사들이 국제 검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정부의 통상 업무, 유엔업무 및 주요국 주재공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국제 검찰 활동 참여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국제검사협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국제마약 회의이다. 국제검사협회는 1996년 창설돼 170여개 국가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유엔 인정의 유일한 기관이다. 지도부로는 30명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다. 회원들은 거의 모두가 현직 검사나 군 검찰관들이다. 예외로 집행위원

을 역임한 사람은 현직이 아니라도 상원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로서는 4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필자는 2004년 광주고검장 재직 시 한국 집행위원으로서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검찰은 2013년 범죄수익 박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주도

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제마약회의 참여다. 1989년 우리나라에서 마약문제가 심각해지자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마약사범 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예방과 국제협력분야까지 좋은 실적을 올려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문제에 잘 대처하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에 전일 마약과장을 초청하는 관례가 굳어졌는데 20여명의 전직 대검 마약과장인 변호사들이 초청 대상이다. 필자는 2대 마약과장으로 활동하며 참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유창중 초대 마약과장 및 필리핀 마약청장과 함께 검찰총장의 감사패를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통상 및 유엔 업무와 주요국 공관 지원 활동으로는 법무부에서 전문지원인인 '통상법률'을 발간 배포하며 제네바대표부와 유엔대표부 등에 법무협력관으로 검사를 파견해 WTO기구 및 유엔에 대처하며 공공법무를 지원하고 상담수의 변호사들이 FTA등 각종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통상법률'은 본인이 법무부 국제법무

심의관 재직 시 1995년 2월 창간한 격월간지다. WTO규범과 분쟁판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금융법 등 최신 통상법률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1호당 200여 쪽으로 136호까지 최신 전문지식과 정보가 2만7000여 쪽에 이르게 축적된 것은 큰 자산이라 하겠다. 전문가들로부터 국제경제법 분야의 가장 주목받는 학술지며 통상 협상의 실무처리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들은 미국(워싱턴, 뉴욕, LA), 중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8개 공관에서 법률자문, 교포 법률지원 주재 국가의 범무교류 및 사법공조 지원, 국제기구 회의 참석 또는 지원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뉴욕 유엔 대표부와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파견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필자가 힘들게 기조를 닦았었는데 보람을 느낀다. 상당수의 한국검사들과 변호사들이 세계화시대에 적극적으로 국제 활동을 전문으로써 국익을 증진하는 이러한 관행이 전통으로 확립되고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

기 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작은 생각, 큰 변화



김 수 완  
조선대 치과병원장

헝가리의 핵심 경제도시로 자리잡았다. 의료 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체류 비용도 많다. 지역 내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교통·문화·쇼핑·미용 및 관광 산업 등 여러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의료 관광시장의 경쟁력은 앞선 의료기술과 그에 비해 저렴한 가격 및 빠른 서비스에 있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우리 의료 기술을 배우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최첨단 장비 보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 또한 인구 대비 의료 인력이 인구 1만 명당 122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3차 의료 기관인 대학병원 2곳, 치과대학병원을 2곳이나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의료 장비 및 기술 등도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 관광 자원의 13.8%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화 관광 및 자연 생태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웰니스 의료 관광 산업에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 지역과 비교해 외국인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일본과 중국의 정부 주도형 의료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광주·전남의 고유한 경쟁력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노르타나이는 수도 베를린으로부터 7시간 떨어진 북극해에 위치한 면적 26.3km<sup>2</sup>, 인구 6000여 명의 매우 작은 섬으로, 광주시보다 접근성이 낮은데도 유럽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왜 관광객들은 7시간 이상 걸리는 북해의 오지로 휴양을 가는 것일까? 오염되지 않은 청정 공기, 모래 해변과 갯벌 같은 자연 환경에 스파·요가·마사지 등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더해져 신체 및 정신적 휴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몽골,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가파른 경제 성장 정책으로 미세먼지, 공기 오염, 공해 등에 시달리면서 맑고 청정한 자연 및 공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무등산을 토대로 한 광주·전남의 천혜의 자연 환경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큰 경쟁력이 된다. 또한 이 지역은 풍부한 농산물과 해산물로 국내 최고의 한식문화가 발달해 있고, 매년 낙안읍성에서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열릴 만큼 전남의 각 시·군이 자랑하는 전통문화가 다양한 것도 큰 매력이다.

의료 관광과 힐링, 이 두 가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에게 광주·전남의 청정한 공기 및 자연 환경과 남도의 음식은 국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광주·전남만의 강점이다.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 '왓슨'을 도입해 각종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한다. 항공 및 교통의 발전과 해외 의료 시장의 개방은 국가 간의 의료 장벽을 허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 통신 매체의 발달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은 각 가정에서 전 세계의 의료 시설 및 환경을 손쉽게 검색하고, 각국 간 의료비용과 서비스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의료 수준을 비슷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외국인 의료 소비자의 의료 관광지와 치료 유형의 선택은 각국의 의료 서비스 품질보다는 특정 국가·지역의 웰니스 특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산업에 있어 의료 관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이다. 최근 추세인 웰니스 관광은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의료 산업의 근간을 좌우한다. 지역사회가 더욱 큰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社 說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결정 너무 당연하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으로 광주 시민의 공분을 샀던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5·18에 대한 할말기를 근절하는 견제 장치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및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군인들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5·18을 왜곡하고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며 604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33곳에 달하

는 5·18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 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 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진실까지 왜곡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또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부 보수 세력의 조직적인 5·18 왜곡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18과 광주정신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헌법 전문 수록, 특별법 개정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5·18 역사 왜곡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워 진실을 규명하는 일각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극성 사라진 시민 의식

견디기 어려운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광주 시민의 시민 의식마저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광주 총장로·금남로 등 도심과 전남대·조선대 등 대학가는 주말이면 시민들이 버린 음료수 컵 등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광주로서는 첫 국제 행사인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얻은 국제도시로서의 명성마저 바래게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물리는 총장로 일대와 전남대 후문 상가 등은 주말과 휴일이면 산더미처럼 버려진 쓰레기를 때문에 미란 훼손은 물론 악취로 인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폭염으로 음료수 마시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버린 테이크아웃 용 컵들이 길거리 화단이나 가로수 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일회용 음료수 컵으로 이들 컵에 담긴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악취까지 풍기기도 한다.

무차별로 버려지는 쓰레기들 때문에 각 구청들은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증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총장로 일대의 불법 쓰레기는 평소 하루 0.7t이었으나 최근 주말만 되면 세 배가 넘는 2.5t에 달한다. 견디다 못한 동구청이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 CCTV까지 설치했지만 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다. 결국 고민 끝에 동구청이 상가 업소들과 함께 높이 1.2m에 달하는 대형 컵킵 모양의 쓰레기통 5개를 설치하면서 다소 효과를 보고 있다.

무더위에 매사가 귀찮고 짜증날 만하다. 하지만 길가에 슬쩍 버린 테이크아웃 컵 하나가 광주의 시민 의식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구청들도 여름철 도심 쓰레기의 대부분이 분리수거되는 플라스틱 컵인 점을 감안, 행인이 물리는 지점에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소설 '닥터 지바고'의 저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는 끝내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경멸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파스테르나크는 작가동맹에서도 제명된 채 불우하게 살다 1960년에 사망한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1951)도 발표 당시 금서로 지정됐다. 명문고에 다니는 주인공 콜필드는 학교를 부정하고 일탈을 감행한다. 학

‘세종 도서’

이 소설을 '쓰레기'로 규정하며 책이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교육적이라는 이유였다. 이밖에도 한때 금서가 된 책들은 적지 않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1922)는 음란성이 문제가 됐으며,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1961)은 정교도주의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판금 조치됐다. 미국 문학에서 금서의 고전적인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1850)는 외설적이란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자유로운 나라, 미국의 이면에 드러워진 '블랙리스트'의 역사 또한 간단치 않다. 최근 상반기 '세종 도서' 목록이 발표됐

다. 세종 도서는 정부가 공공도서관에 비치할 우 도서로 구매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도서들이 다수 선정됐다. 광주 5월을 다른 한강의 '소년이 온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김탁환의 '거지침묵', 경제의 음란인 윤이상을 조명한 박선옥의 '윤이상 평전' 등이 포함됐다. 이들 도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동적으로 '사상 검증'을 받은 책들이다.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

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문

(文)의 힘은 무한하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금서'들은 후일 고전이 돼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단 한 줄도 읽지 못하게 하라"의 저자 주조는 "비운의 결작들은 시간에 희망을 건다. 아무리 광적이고 편집적인 머리라도 시간이라는 강에 끊임없이 씻기면 천천히 식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1933년 나치의 분서에 항의한 헬렌 켈러의 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신들이 사상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